

營·衛氣에 對한 文獻的 考察

홍승원¹ · 엄정훈¹ · 이상룡¹

¹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A Study of Literature on the Ying Qi and Wei Qi

Seung-won Hong¹, Jeong-hun Um¹, Sang-yong Lee¹

¹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o study of Literature on the Ying Qi and Wei Qi One of thing that is among basis theory of Oriental medicine is Vital Essence, Vitality, Qi and Blood(精神氣血) justly.

Results : Physiological special quality of Ying Qi(營氣) first, flows within Blood Circulation and the temper is mild and second, transform blood and grow up whole body, and follow through Pectoral Qi(宗氣). Wei Qi(衛氣) means running regeneration of material that do guard action of human body as refined nutritious substances transformed in food. Physiological special quality of Wei Qi(衛氣) first, nature is fast, smooth, and sharp. And it flows outside Blood Circulation. Second, go on muscular gap without following through Pectoral Qi(宗氣). Ying blood(營血) flows within Blood Circulation means living body ingredient which thing reveals by circulation of the blood change phenomenon. Ying Qi(營氣) is Ying(營) in meaning which go on meridians, therefore meridians as wandering living body reaction route mean. This Ying Qi(營氣)'s physiology transform blood and grows up whole body and flows within Blood Circulation. It becomes most important ingredient of composition of blood, Wei Qi(衛氣) transforms and becomes nutrition constantly by running regeneration of material which transform in Jungcho(中焦) and spread by spreading action of upper chest exhaust in lower belly above the bladder of apriority, Kidney-yang.

Key words : Ying Qi, Wei Qi, Pectoral Qi, Vital Essence, Vitality

I. 서 론

한의학의 기초이론 중에서 개념 정리가 쉽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精神氣血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氣에 대한 개념은 의미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여 아직도 기에 대한 정의가 명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황제내경에만 68종의 氣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氣에 대

한 이해는 곧 한의학에 대한 이해라 할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氣란 고대에 동양인들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가졌던 소박한 인식의 표현이다. 이들은 氣가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고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은 氣의 운동변화로 인해 생성되고 소멸되며, 인체에서 발현되는 생명활동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원전 곳곳에서 발견된다. 《素問·調經論》에서는 人之所有者 血與氣라 하였고, 《醫門法律》에서는 氣聚則形成 氣散則形亡이라 표현하여 人體 生命活動에 있어 氣

· 교신저자: 이상룡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290-1563 Fax. 063-290-1558, E-mail: lisr@woosuk.ac.kr

가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2,3)}.

또 氣의 운동과 변화에 의해 생명활동이 발현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을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이라 설명하고 있다²⁾.

만일 인체에서 氣가 없다면 육체적 정신적 모든 활동, 즉 생명활동은 중지되고 하나의 형체만 남게될 것이다. 인체의 氣의 근원은 肺의 호흡작용과 脾胃의 음식물 소화흡수 작용에 의해 생긴 물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張介賓은 《類經》에서 精氣神의 상호관계를論하면서 氣에는 先天氣와 後天氣가 있다고 하였다. 무릇 生化하는 道는 氣로써 根本을 삼아 천지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氣는 天地의 밖에 있어서는 天地를 감싸안고, 天地의 안에 있어서는 天地를 運行시키니 日月星辰이 그로 말미암아 빛나며 雷雨風雲이 그로 인해 베풀어지고 四時萬物이 그로 인해서 生長收藏하니 어떤 것이 氣가 行하는 바가 아니리오. 사람이 생을 영위함도 전적으로 이 氣에 의뢰해서 있다고 하였다³⁾.

이와 같이 氣의 概念은 氣體를 의미할 때와 기능이나 작용을 의미할 때 그리고 인체의 생명력을 의미할 때, 우주의 본질을 의미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靈樞·決氣篇》에는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라 하여 인체 내에서의 氣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³⁾.

이러한 관점들은 한의학에서 기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의 문헌 중 氣에 관한 논술을 보면 그 의미가 크게 둘로 정리된다. 그 하나는 인체를 구성하여 인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精微物質로서 水穀之氣와 呼吸之氣를 일컫는 것이고, 두번째는 장부 경락의 生理功能의 기능적 실체를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개념 중에서 경락의 주

요한 기능적 動力 실체로 설명되고 있는 營氣와 衛氣를 통해 한의학에서 기의 위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營氣

1) 營氣의 개념

營氣는 血과 더불어 脈中을 行하고 영양작용을 갖고 있는 氣이다. 즉 영양에 있어서 풍부하므로 營氣라고 칭한다. 《讀醫隨筆》에서는 營氣者 出于脾胃 以濡筋骨 肌肉 皮膚 充滿推移于血脈之中而不動者也라고 말한다. 營氣와 血이 脈中을 同行하므로 兩者는 모두 全身을 營養하는 作用을 갖고 있으며, 營氣는 또 능히 血로 化生할 수 있다. 이 兩者는 可히 나눌 수는 있으나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항상 營血이라 습하여 稱하는 것이다. 營氣와 衛氣는 相對되어 말하는 것으로 또 陰에 續하므로 稱하여 營陰이라고도 한다¹⁾.

2) 營氣의 生成 및 分布

營氣의 주요 근원은 脾胃運化로 인한 水穀의 精氣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水穀精氣의 精華로운 부분이 化生하는 것이다.

宗氣의 營衛와의 습함에 그 사이에 血液과 함께 脈中에 있으므로 營氣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素問·痺論》에서는 榮者水谷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於六腑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貫五臟 絡六腑也라고 한 것이다.

營氣는 水穀의 精微한 부분이 脾胃에서 吸收된 후 肺에서 宗氣의 作用을 받아 機能化하여 生成된다. 機能化된 營氣는 肺에서 血脈을 따라 全身에 分布하여 循環하면서 人體의 外로는 四肢百骸에 內로는 오장육부에 까지 營養分을

1) 《讀醫隨筆》 ‘營氣, 與是血共行于脈中的, 具有營養作用之氣. 因其富于營養, 故于稱爲營氣. 所以說: “營氣者, 出于脾胃, 以濡筋骨, 肌肉, 皮膚, 充滿推移于血脈之中而不動者也.” 由于營氣與血同行于脈中, 兩者于都有營養全身的作用, 而營氣又能化生爲血, 兩者可分而不可離, 故常常 “營血” 并稱. 營氣與衛氣相對而言, 續于陰, 故又稱爲 “營陰”.’

營·衛氣에 對한 文獻的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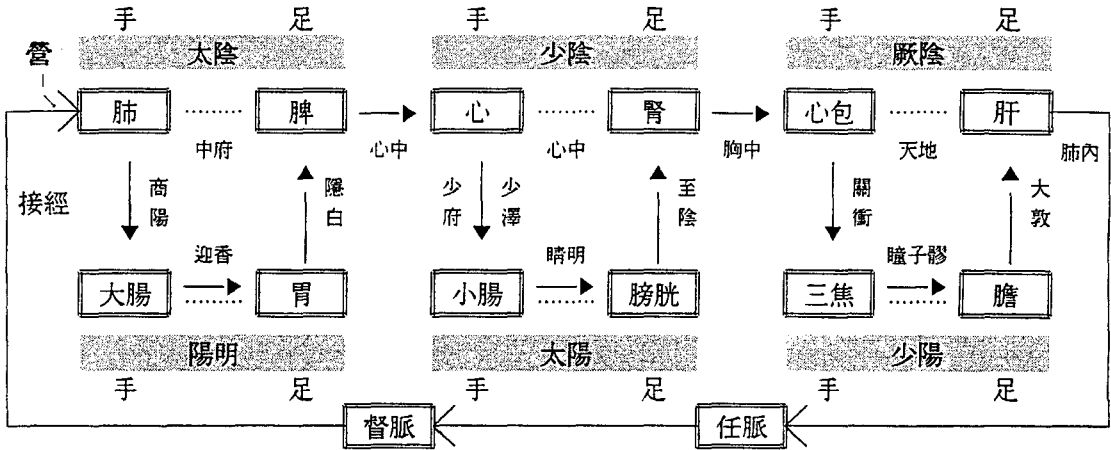


Fig. 1. 營氣의 循環에 對한 모식도

공급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²³⁾.

營氣는 심이경맥과 任督二脈을 통과하여 전신을 순행하며 오장에貫하며 六腑에絡한다.

3) 營氣의 機能

營氣의 主要 생리기능은 血液을 생산하고 全身을 영양하는 두 개 方面을 包括한다.

- ① 血液의 化生: 營氣가 肺經의 脈中으로 들어와 血液을 構成하는 成分의 하나가 된다.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⁴⁾,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⁵⁾라 하였다.
- ② 全身의 營養: 營氣가 全身을 순행하는 동안 臟腑와 經絡 等に 營養物質을 供給하여 全身의 上下內外를 營運한다. 五藏六腑를 滋養하며 밖으로는 皮毛筋骨에 布散되어 澆灌한다.

총괄하여 말하면 營氣는 脾胃中의 水穀의 氣가 化生하여 血脈의 가운데에 分布되어 血液의

組成部分을 이루며 몸을 돌며 營運하여 그 營養作用을 發揮하여서 營者水穀之精 和調于五藏 洒陣于六府 乃能入于脈也 源源而來 化生于脾 總統于心 藏受于肝 宣布于肺 施泄于腎 灌溉一身 目得之而能視, 耳得之而能聽 手得之而能握 足得之而能步 臟得之而能液 腑得之而能氣 注入于脈 少則澁 充則實 常以飲食滋養 則陽生 陰長 變化而爲血⁶⁾이라 하였다.

4) 營氣의 循環

《靈樞·邪客篇》에서 營氣는 津液이 脈으로 들어가 血로 化한 것이라 하였고,⁷⁾ 《靈樞·營衛生會篇》에서 營은 脈中을 衛는 脈外를 流注하며 營은 쉬지 않고 周行하는데 五十에서 다시 大會한다고하여 如環無端한다고 하였다.⁸⁾ 任督의 循行은 營氣가 十二經을 循行周流하는 時間에 별도로 한 分支를 이루어 肝에서 별도로 出하여 위로 額部에 이르고 顛頂을 돌아

- 2) 《類經》 '營氣者 由穀入於胃 中焦受氣取汁 化其精微 而上注於肺 乃自手太陰始 周行於 經隧之中 故氣出於中焦'
- 3) 《靈樞·五味篇》 '穀入於胃 氣精微者 先出於胃之兩焦 而溉五臟 別出兩行 營衛之道'
- 4) 《靈樞·邪客》
- 5) 《靈樞·營衛生會》
- 6) 《婦人良方·調經門》
- 7) 《靈樞·邪客篇》 '營氣者 泌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 8) 《靈樞·營衛生會篇》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腑 溉以受氣 氣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

項의 中間을 순환한다. 脊骨아래의 尾骶部에 入하며 督脈의 循行은 陰器에 絡하여 위로 毛際를 지나 臍中에 入하며 위로 向하여 腹裏에 入한다. 다시 缺盆部에 進入한 然後에 아래로 肺中에 注入하여 手太陰肺經으로 다시 나온다. 營氣의 十二經脈 循行과 任脈의 循行에 十四經을 순서대로 流注하는 것은 마치 上에서 下로 또 下에서 上으로 出陰하여 入陽하고 또 出陽하여 入陰하여 相互逆順이 되어 如環無端하게 된다.⁹⁾

營氣의 循行速度에 관해서는 <靈樞·五十營>의 記載에 根據하면 두 種類의 計算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呼吸定息 計算法으로 人體 經脈의 總 길이(長度)가 十六丈二尺이므로, 一呼一吸(一息)에 營氣는 六寸을 運行한다. 하루 밤낮의 呼吸의 數는 一萬三千五百息이므로 합하면 營氣의 한 바퀴 循行에 二百七十息이 된다. 이런 하루 晝夜의 營氣循行이 五十바퀴가 되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漏下百刻 計算法¹⁰⁾이다. 이는 물시계의 물방울 떨어지는 것을 百刻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銅壺滴漏는 古代의 計時器로서 하루를 百刻으로 나누어 매일 銅壺滴의 물이 떨어져 百刻을 이루듯 營氣가 十四經을 한 바퀴 循行하는 時間동안을 漏下二刻으로 하여 하

루에 營氣가 人體를 五十바퀴 도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 衛氣

1) 衛氣의 概念

衛氣라 함은 衛는 保衛의 뜻으로 신체를 保衛하는 氣라는 뜻이며 保衛라 함은 外部에서 侵入하는 病邪를 防禦한다는 뜻인즉 그 氣는 強해야 하고 嚴해야 하며, 果敢해야 한다. 또 皮膚 體表를 돌아다니므로 氣의 성질이 漂疾滑利하여 病邪와 투쟁을 하기 쉽다.¹¹⁾

<素問·痺論篇>에서 衛氣는 水穀의 悍氣로서 그 氣가 漂疾滑利하여 脈內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皮膚 중 分肉의 間을 循하여 盲膜을 裏하고 胸腹에 散한다고 하였으며¹²⁾, <靈樞·經脈篇>에서는 飲酒하면 衛氣가 먼저 皮膚로 行하여 經脈을 先充하므로 經脈이 先盛하여 衛氣가 已平한다고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濁한 것이 위가 되며, 衛氣는 脈外에 있어 陰二十五度를 行하고 陽二十五度를 行하여 晝夜로 分한다고 하였다.¹³⁾ 또 <靈樞·本藏篇>에서는 衛氣는 分肉을 溫하고, 皮膚를 充하며, 腠理를 肥하고, 開闔을 司한다고 하였다.¹⁴⁾

9) <靈樞·營氣> ‘黃帝曰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傳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故氣從太陰出 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跗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顛內 注目內眥 上顛下項 合足太陽 循脊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 外散於胸中 循心注脈 出腋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膻中 散於三焦 從三焦注臍 出脇 注足少陽 下行至跗上 復從跗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之竅 究於畜門 其支別者 上額 循顛 下項中 循脊 入軀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

10) ‘刻’은 古代에 時間을 재는 單位로서, 古代에 時計가 없었을 때는 銅壺의 滴水가 아래로 떨어지는 水面의 角度가 時間을 재는 標志가 되었으니 每晝夜의 滴水는 百刻으로서 오늘날의 二十四時에 該當한다. 一刻은 十四分 二十四秒에 合한다.

11) <衛生寶鑑> ‘衛, 有“衛護”, “保衛”之義. 衛氣是 營氣相諧, 行于 脈外之氣. 衛氣與 營氣相對而言, 屬于 陽, 故又稱“衛陽”. “蓋 陽氣爲 衛, 衛氣者, 所以 溫分肉, 充皮毛, 肥腠理, 司開合, 此皆 衛外而爲 固也.” 衛氣其性 慄疾滑利, 活動力強, 流動迅速.’

12) <素問·痺論篇> ‘衛者 水穀之悍氣也 其氣 慄疾滑利 不能入於 脈也 故循 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 盲膜 散於 胸膜’

13) <靈樞·營衛生會篇> ‘衛氣 行於 陰 二十五度 行於 陽 二十五度 分爲 晝夜 故氣 至陽而起 至陰而止’

14) <靈樞·本藏篇> ‘衛氣者 所以 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 衛氣和則 分肉解 皮膚調柔 腠理緻密’

2) 衛氣의 生成과 分布

衛氣는 營氣와 마찬가지로 水穀精微에서 所生하여 化한 것이다.

衛氣의 生成에 關해서는 歷代醫家の 認識이 各各 다르다. 大體의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 衛氣出于上焦：《靈樞·決氣》에서 營氣를 좇아 肺를 通過하여 宣發과 薰膚充身하고 澤毛하는 作用을 發揮한다. 그러므로 上焦開發 宣五穀味 薰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衛氣, 張志聰은 《黃帝內經靈樞集注》에서 明確하게 衛者 陰陽水穀之悍氣 從上焦而出 衛于表陽 故曰衛出上焦라고 提示하였다.

② 衛氣出于中焦：營衛는 균등하게 中焦에서 所生하여 水穀精微로 化한다. 이런 觀點은 처음으로《靈樞·營衛生會》편에 보인다. 後世의 學者들은 進一步한 설명을 指出한다. 營衛者皆後天之穀氣也¹⁵⁾ 胃者 衛之源¹⁶⁾등이다.

③ 衛氣出于下焦：《靈樞·營衛生會》에는 營出于中焦 衛出于下焦라고 되어 있다. 張景岳은 進一步하게 衛出下焦의 論理를 闡明하였다. 衛氣者 陰氣也 …… 衛氣出于下焦 漸升而上 …… 晝自足太陽始 行于六陽經 以下陰合 夜自足太陰始 行于六陰經 復注于腎 晝夜各二十五周 不隨宗氣而自行各經皮膚分肉之間¹⁷⁾

위의 세 가지는 각기 어느 한 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觀點이 틀려서 대립하는 것 같지만 實제로는 모두 한 가지이다. 즉 衛氣는 元氣의 一部分으로 그 化生하여 肺, 脾, 腎의 三臟과 밀접하고 主要한 關係가 있다. 元氣는 腎中의 先天之精氣에 根源하는데, 腎은 下焦에 居하므로 말하기를 衛出下焦라 하였고, 衛氣 또한 中焦에 의지하여 脾胃에서 化生한 水穀精微를 不斷히 補充과 滋養하여 後天을 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衛出中焦의 說도 一理가 있다. 또

모든 氣가 肺에 屬하니 衛氣역시 上焦에서 肺氣의 宣發과 그 作用을 發揮하는 故로 稱하기를 衛出上焦라 하여, 衛氣는 下焦에 根源하며 中焦에서 滋生하며 上焦에서 宣發을 하여 生成하여 上, 中, 下焦에 分布와 機能을 하게 된다.

3) 衛氣의 機能

衛氣의 主要機能에 對해 3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① 肌表를 保衛하며 外邪의 侵入을 防禦한다.

衛는 保衛의 뜻이다. 피부에 가득찬 衛氣는 外部에서 오는 邪氣에 저항하는 방어선과 같아서 邪氣가 人體에 侵入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孫一奎는 衛氣者 爲言護衛調身 溫分肉 肥腠理 不使外邪侵犯也¹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衛氣가 虛하면 外邪에 쉽게 감염되어 발병한다.

② 臟腑 肌肉 皮毛 等を 溫養한다.

衛氣는 全身을 溫煦하게 하며 안으로는 臟腑를 밖으로는 筋肉 皮毛를 溫煦하게 한다. 衛氣가 和順하면 人體 內外의 溫度가 적당해져서 臟腑 形體 九竅가 正常的으로 生理活動을 한다¹⁹⁾. 만약 衛氣가 不足하면 溫煦하는 力量이 貧弱해지므로 寒象이 出現한다. 그러므로 周學海는 衛氣者 熱氣也. 凡肌肉之所以能溫, 水穀之所以能化者, 衛氣之功用也. 虛則病寒, 實則病熱²⁰⁾라 하였다. 동시에 衛氣는 水穀精微로서 全身을 充養하는 作用을 한다.

③ 肌腠의 開合과 汗液의 排泄을 調節하고 統制한다.

人體生命活動의 需要는 衛氣의 活動에 根據한다. 肌腠를 열고 닫음으로써 人體의 水液代謝와 體溫을 調節하게 되어 人體內

15) 《醫宗金鑑·傷寒論注》

16) 《王九峰醫按》

17) 《醫家四要》

18) 《醫旨緒餘·宗氣營氣衛氣》

19) 《靈樞·藏篇》‘衛氣和 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

20) 《讀醫隨筆·氣血精神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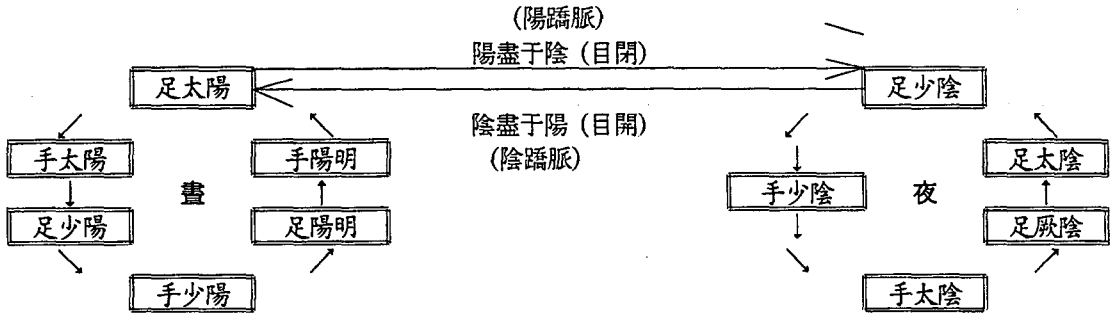


Fig. 2. 衛氣의 循環에 대한 모식도

의 環境과 외부 環境과의 平衡을 維持하는 것이다²¹⁾.

이 외에 衛氣의 循行과 사람의 睡眠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衛氣가 體內를 行할 때에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있으며, 衛氣가 精明으로부터 體表로 나오는 때에는 사람은 醒寤할 수 있다. 만약 衛氣의 循行이 正常的이지 못하면 睡眠에도 異常이 있을 수 있다. 衛氣가 陽分을 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잠자는 시각이 짧아지고, 陰分을 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잠자는 시각이 길어지는 것이다²²⁾.

衛氣가 不足할 때에는 人體의 肌表가 固護 防禦機能이 低下되어 쉽게 外邪의 侵襲을 받고 또 病이 들면 쉽게 낫지 못한다. 臟腑機能의 低下는 體質下降에까지 미쳐 皮膚 肌肉 感覺을 떨어뜨린다. 臟의 根源이 陰인 營氣이며 臟의 出入

이 陽인 衛氣에 依存하므로 臟이 衛氣의 통제와 조절을 받아 분비되는데 衛氣가 虛하여 固攝하는 힘이 없어지면 식은 臟을 흘리게 된다.

4) 衛氣의 循環

衛氣의 循行은 營氣와 같이 하루에 五十回인데 낮에는 陽經을 밤에는 陰經을 순행한다. 낮에는 足太陽膀胱經에서 시작하여 手太陽 足少陽 足陽明 手陽明經을 순행하여 다시 足太陽經으로 이어져 陽分에 二十五回를 순행하며 밤에는 足少陰腎經에서 시작하여 五臟을 調하며 그 行이 相克의 차례가 되므로 腎, 心, 肺, 肝, 脾를 相傳하여 一調가 되고 다시 腎에 注하여 陰이 다하면 陽이 出하여 다시 目中서 合하며 晝行을 陽二十五調次²³⁾하며, 夜行을 陰二十五調次하여 晝夜에 모두 五十調를 行한다²⁴⁾²⁵⁾.

21) 《景岳全書·汗證》 '汗發于陰而出于陽, 此其根本則由陰中之營氣, 而其開閉則由陽中之衛氣'

22) 《黃元御醫書十一種》 '衛氣入於陰則寐 出於陽則寤'

23) 二十五調; 實際上, 衛氣晝行于陽25.2調, 夜行于陰亦25.2調. 因爲衛氣一行十四"舍". 舍則宿也, 一舍即一宿也. 宿爲星宿, 古人認爲地球之上均勻地環繞分布着二十八個星宿, 并以地球爲中心觀察二十八宿的運行. 認爲每晝夜轉過二十八宿周天, 而同時每晝夜衛氣行身五十調, 所以每轉過一個星宿(一舍), 則衛氣行身的周數爲50/28, 計爲1.7857周有余, 以四舍五入法概定1.8爲周. 日行十四舍爲周天之半, 衛氣當行身 $14 \times 1.8 = 25.2$ 周 (据《靈樞·衛氣行》).

24) 《靈樞·衛氣行篇》 '衛氣之行 一日一夜五十周於身 晝日行於陽二十五周 夜行於陰二十五周 周於五臟.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眼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眦, 下手太陽, 下至小手指之端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眦,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 下至小指次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以下行, 至跗上, 入五指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 "陽盡於陰, 陰受氣矣. 其始入於陰, 常從足少陰注於腎, 腎注於心, 心注於肺, 肺注於肝, 肝注於脾, 脾復注於腎爲周.'

25) 《類經》 '衛氣者 陽氣也 衛氣出於下焦 漸升而上 每日平旦 陰盡 陽氣出於目之精明穴 上行於頭 晝自足太陽始 行於六陽經 以下陰分 夜自足少陰始 行於六陰經 復注於腎 晝夜各二十五周 不隨宗氣而自行於各經 皮膚分肉之間.'

총괄하여 말하면 衛氣는 晝에 陽二十五調(六腑)를 行하며, 夜에 陰二十五調(五臟)을 행하니 모두 五十調가 된다. 脈外를 附行하여 皮膚의 中과 分肉之間의 盲膜을 循하여 胸復에 散한다.

衛氣는 皮膚의 表面을 巡廻하여 日暮하면 皮膚로 들어가므로 衛氣가 皮膚의 表를 巡廻하는 동안에 心氣가 긴장하여 잠이 오지 않다가 日暮후에는 皮膚內로 들어가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서 잠이 오게 된다. 衛氣는 外部에 돌아다니는 悍氣를 말한 것으로 사람이 日出後면 動하는데 動할때는 悍氣와 접촉하므로 잠이 오지 않다가 日沒後에 入室하여 溫氣를 取하면 피곤한 나머지 잠이 오게 된다.

衛氣가 日沒後에는 皮膚下에서 휴식을 취한다. 衛氣는 泥丸宮을 올라와서 後腦上端을 통과하여 心包와 肝을 거쳐서 臂으로 들어가 血과 습하니 처음에는 胃에 들어가 正陽이 되고 脾로 들어가서 다시 肺로 옮겨갈 때에는 五臟의 最高處에 도달해서 天에 가까워서 완전한 白晝의 현상이고 重樓로 올라와서 泥丸宮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白晝이며, 後腦上端으로 내려갈 때에는 夕陽이며 心包에 이르렀을 때에는 戌時이고 肝으로 들어갈 때에는 丑時이며 最後 據點인 臂으로 들어가 氣와 血이 습하여 다시 上升을 시작하는 것이다.

Ⅲ. 고 찰

1. 營在脈中 衛在脈外에 대한 考察

(1) 張介賓은 衛在脈外는 衛氣가 위로 肺에 輸送되어 臟腑에 走行하고 밖으로는 皮毛에 到達하여 營血을 護衛하는 作用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難經》 「三十三難」에는 心은 血이고 肺는 氣이며 血은 營이 되고 氣는 爲가 되니 서로 上下로 隨行하므로 營·衛라 名하였으며, 營·衛氣는 經絡을 通行하고 밖을

經營하고 돌게 된다고 되어 있으니 역시 이 뜻이라고 했다.²⁶⁾

(2) 《靈樞注證發微》 卷二의 註에는 營氣는 陰性이고 精專하여 宗氣를 따라서 經隧의 가운데를 運行하니 營이 運行하는 곳은 經脈의 가운데에 있다. 衛氣는 陽性이고, 慄悍滑利하여 經隧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宗氣를 따르지 않고 運行하여 스스로 各 經의 皮膚와 分肉의 사이에서 運行하므로 衛氣가 運行하는 곳은 經脈의 밖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靈樞集註》 卷二에는 脈內 脈外의 뜻을 說明하여 榮·衛氣는 서로 거느리고 衛氣는 榮氣를 따라 運行하는 것이다. 무릇 經에서 營行脈中, 衛行脈外라고 말한 것은 榮·衛의 두 氣가 陰陽·清濁의 道路로 나뉘어 짐을 말한 것이다. 대개 經脈의 밖에는 皮膚를 充實하게 하고 肌肉을 덥혀주는 血氣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榮氣이니, 마땅히 脈 밖에는 榮氣가 있어 衛氣와 서로 거느리고 出入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靈樞·衛氣篇》에서는 脈內의 血氣가 氣街에서 皮膚 表面에 나오므로 衛氣와 서로 습하여 함께 運行한다고 論하였다. 무릇 脈內의 血氣가 順調롭게 運行하면 脈外의 氣血은 逆轉되니 이것이 陰陽·離合·外內·逆順의 正常이다. 陰陽의 道는 變化가 無窮하다. 千古 아래로 모두 營行脈中, 衛行脈外의 文句에 拘礙받아 전체의 內經에 會通하지 못하여 大義에 어둡게 된지 오래다라고 되어 있다. 營·衛氣는 곧 氣血·脈內·脈外에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張志聰의 말은 營內·衛外의 辨證關係를 가리켰고 마땅히 중시한다.

2. 營衛에 대한 現代的 考察

營衛에 대하여 黃²⁷⁾은 營衛는 經絡의 氣血이고, 氣가 脈外를 行하는 것이 衛이고, 血이 脈中을 行하는 것이 營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脈中은 血管系를 말하고 脈外는 血管系 以外的

26) 《難經疏證》

27) 黃元御 : 黃元御醫書十一種(上)靈樞懸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13

經脈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營衛에 대한 概念에 있어 林²⁸⁾ 등은 現代의 概念에서의 氣의 分類에서 營氣는 血液循環을, 衛氣는 免疫·溫熱·作用의 綜合된 概念을 가지고 있으며, 電氣生理學的 觀點에서 營氣의 血液循環 觀點은 ATP↔ADP cycle과 이온교환, 電子轉移가 主軸이 된 細胞의 能動的인 活動性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다. 衛氣는 外邪와의 抗爭을 주로 생각하면서 侵入細菌의 電子量과 生體細胞가 보유하고 있는 充電된 電子量과의 對適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체리듬의 면에서 보면 大部分의 生體機能은 恒常性을 維持시키는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恒常性을 維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一定한 周期로 律動的인 變動을 되풀이하고 있다. 生體機能의 리듬의 周期는 神經活動 등에서 볼 수 있는 1/1000초 수준의 짧은 것에서부터 出產周期와 같이 數個月에서 數年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生體리듬을 發生要因에 따라 나누어 보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內因性리듬(Endogenous rhythm)으로, 體內에 있는 周期發生機構에서 發生되는 心傳周期, 呼吸周期, 月經周期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外因性리듬(Exogenous rhythm)으로 外部環境의 週期的變化, 즉 낮과 밤의 變化, 季節의 變化 등에 의해서 被動的으로 生體機能이 變化하는 것을 말한다. 外部環境의 律動的 變化에 步調를 맞추고 있는 生體機能의 리듬은, 대체로 外部環境과 함께 變化하고 있는 것이지만 外部環境으로부터 격리시키더라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 律動性이 維持되는 生體리듬이 무수히 많다. 즉, 수면·각성의 리듬, 體溫리듬, 副腎皮質호르몬 분

泌의 리듬, 尿量의 리듬 등이 그렇다²⁹⁾. 營氣의 循行周期를 보면 營氣는 十四經脈을 끊임없이 循行하면서 각 器官과 組織을 營養하는 作用을 하며, 營氣는 낮과 밤에 각각 다른 周期를 가지며 機能을 修行한다. 여기서 血液의 끊임없는 循環은 營氣의 周期와 그 意味가 符合되며, 外部의 낮과 밤의 變化에 따른 수면·각성의 리듬, 體溫리듬, 副腎皮質호르몬 分泌의 리듬, 尿量의 리듬 등의 周期를 달리하는 外因性리듬과 營氣의 循行이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鍼治療에 있어서 李³⁰⁾와 王³¹⁾은 <靈樞·官鍼篇>에 半刺나 毛刺, 그리고 現代의 皮膚針, 皮內針法, 挑治法, 數點法 등은 모두 <素問·五藏生成論>의 “皮膚者 衛氣只所留止 邪氣之所客也 鍼石緣而去之”, <靈樞·禁服篇>의 “審察衛氣 爲百病母”등을 통해 衛氣의 調節이 皮膚상에 나타난 疾病을 治療하는 것과 매우 관계가 많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靈樞·壽夭剛柔>³²⁾에서 衛分에 鍼을 놓는 것은 邪氣를 排出시키려는 것이고, <素問·調經論篇>³³⁾에서 病이 氣에 있으면 衛氣를 調節하며, <靈樞·禁服>³⁴⁾에서 衛氣를 잘 살펴서 모든 病의 어머니로 삼는다고 하여 鍼治療時 調氣治神 중의 調氣와 衛氣의 調節과는 密接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에게는 大谷(가장 큰 關節) 열 두개와 小谿 三百五十三穴이 있으며 모두 衛氣가 모이는 곳이며 또한 邪氣가 侵入하여 머무르는 場所이므로, 일단 病에 걸리면 반드시 이곳에 鍼을 놓아 邪氣를 몰아내야 한다³⁵⁾고 한 것과, 여러 要因으로 人體의 陰陽이 깨어지고 經絡의 氣가 끊어져 脈度가 통하지 않으며 衛氣가 停滯되어 運行되지 않는

28) 임준규 외 : 生體電氣生理와 氣의 機能과의 比較研究, 大田大學論文集, 1986, 5(2):15

29) 성호경 외 : 生理學, 서울, 醫學文化社, 1996, p.361

30) 李鼎 외 : 經絡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12-3

31) 王雪苔 : 中國鍼灸大全,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8, pp.116-8

32) <靈樞·壽夭剛柔> ‘刺營者出血 刺衛者出氣’

33) <素問·調經論篇> ‘病在氣 調之衛’

34) <靈樞·禁服> ‘審察衛氣 爲百病母 調其虛實 虛實乃止 瀉其血絡 血盡不殆矣’

35) <素問·五藏生成篇> ‘人有大谷十二分 小谿三百五十四名 少十二俞 此皆衛氣之所留止 邪氣之所客也 鍼石緣而去之’

다³⁶⁾고 한 것 등을 綜合해보면, 人體의 가장 重要成分인 氣와 血을 治療하는 方法으로서, 血은 그 瘀血을 除去하는 刺血療法을 使用하고, 氣는 調氣, 즉 動的인 生理的 平衡狀態, 다시 말해서 恒常性(Homeostasis)을 되찾기 위한 身體調節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經脈의 治療 대상이 되는 腧穴(經穴)들은 모두 衛氣가 모이는 곳이며 經脈에 이상이 있으면 衛氣를 治療한다고 한 것은, 鍼의 作用이 '調氣治神'에 있다^{37,38)}는 것과 經絡穴位가 神氣가 流行하며 出入하는 곳³⁹⁾이라는 것이 서로 그 意味가 相通한다. 즉 經絡穴位의 治療作用의 實體는 經脈이고 그 作用은 衛氣의 調節이며, 이것은 調氣治神으로 表現된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營氣와 衛氣의 生成과 本포 主要 功能 순행 및 生理현상에 대하여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營氣의 生理적 特性은 첫째 脈內를 흐르고 그 성질이 柔和하며 둘째 血을 化生하고 全身을 營養하며 그리고 宗氣를 따라서 循經한다. 그러므로 營의 體는 血이 되고, 血의 用은 營이 되는 것이다. 衛氣는 食物에서 化生된 精微物質으로써 人體의 護衛作用을 하는 物質의 運行代謝를 의미한다. 衛氣의 生理的 特性은 첫째, 성질이 慄疾滑利하고 脈外를 運行하며 둘째, 宗氣를 따라서 循經하지 않고 皮毛分肉之間을 循行한다.

2. 營血이 注之于脈한다는 것은 血液循環에 依해 發現하는 生體成分의 變化現象이며 營氣란 經絡을 循行하는 意味에서의 營이므로 經絡을 流注하는 生體 反應路線으로서의 意味이다. 이 營氣의 生理機能은 血液을 化生하고 血과

함께 脈中을 流行하며 全身으로 營養하는데, 血液의 構成의 가장 重要한 成分이 되며, 津液이 脈中로 注入하게 하여 血液을 化生하며, 全身을 榮養한다.

3. 衛氣의 化生關係는 根本于下焦(先天 卽 命門相火에서 根本하는 것으로 腎中의 陽氣로부터 化生)하며, 營養于中焦(脾胃에서 化生된 水穀之精微에서 滋養되어야 作用을 發揮할 수 있다)하며 開發于上焦(上焦 肺氣의 宣發作用에 의해 散布)한다. 衛氣는 先天의 下焦 즉, 腎中 陽氣에서 化生되고 中焦 脾胃에서 化生된 水穀 精微에 의해 不斷히 滋養되며 上焦 肺氣의 宣發作用에 의해 散布된다.

이상의 결론으로 볼 때 經絡학설에서 말하는 經기의 구성은 營기와 衛기로 이루어 졌고 營기와 衛기는 한의학적 순환개념을 요약한 상징적 용어로 혈관계 임파계 신경계내분비계 등 현대의학에서 밝힌 순환구조의 기능적 실체와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1. 張介賓. 類經 (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33, 82, 194, 187.
2.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30, 136.
3. 裴秉哲. 今釋 黃帝內經靈樞. 서울 : 成輔社. 1995 : 22, 198-9, 208-9, 212, 270-1, 286, 360, 375, 420, 512, 563, 571-3.
4. 周學海. 讀醫隨筆. 江蘇省 :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 34.
5.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 商務印書館. 1981 : 158.
6. 吳謙. 醫宗金鑑 上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2 : 21.

36) <靈樞·口問> '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暑 陰陽喜怒 飲食居處 大驚卒恐 則血氣分離 陰陽破敗 經絡厥絕 脈度不通 陰陽相逆 衛氣稽留 經脈虛空 血氣不次 乃失其常'

37) <靈樞·刺節眞邪篇> '用鍼之類 在于調氣'

38) <素問·寶命全形論> '凡刺之眞 必先治神'

39) <靈樞·九鍼十二原篇> '所言節者 神氣之所流行出入也'

7. 張介賓. 景岳全書(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88 : 238.
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靈樞懸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517.
9. 丹波元. 素問識·素問紹識·靈樞識·難經疏證.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681.
10. 李鼎 外. 經絡學.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 12-3.
11. 王雪苔. 中國鍼灸大全. 河北 :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16-8.
1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上). 서울 : 集文堂. 1994 : 37-43.
13. 山東中醫學院. 針灸甲乙經校釋(上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79 : 88.
14. 楊甲三. 鍼灸學. 서울 : 醫聖堂. 1993 : 27-8.
15. 康鎭彬. 經典鍼灸學. 서울 : 一中社. 2000 : 46-7.
16. 科學百科事典綜合出版社. 東醫學辭典. 서울 : 麗江出版社. 1989 : 1102-3.
17. 許浚. 東醫寶鑑. 서울 : 연합의서. 1990 : 128-130.
18. 임준규 外. 生體電氣生理와 氣의 機能과의 比較研究. 大田大學論文集. 1986 ; 5(2) 15.
19. 성호경 外. 生理學. 서울 : 醫學文化社. 1996 : 361.